



소득양극화가 가구의 보험가입에 미치는 영향

오승연 연구위원

-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소득불평등 증가는 보험소비자의 구매력과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우리나라의 최상위 10% 소득과 최하위 10% 소득의 비율(소득10분위배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점차로 증가하고 있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소득양극화는 가구의 소득계층 및 가구 특성(연령 또는 가구 유형)에 따라 보험가입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소득계층별로 가구의 보험가입 추이를 보면 중·하위 소득계층의 보험가입이 약화되고 있음.
 - 최근 소득계층별 보험가입률 변화 추이를 보면, 중산층 및 부유층과 비교해 빈곤층의 보험가입률 하락이 두드러짐.
 - 전체 납입보험료 중 빈곤층과 중산층의 비중이 줄고 부유층의 비중이 대폭 증가함.
- 가구 특성별로 보험 구매력 변화를 살펴보면, 중·고령층과 1인 및 부부 가구의 보험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은 빈곤층 비중이 증가하고 부유층 비중이 감소한 반면, 중·고령층(55세 이상)은 타 연령에 비해 빈곤층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음.
 - 전통적으로 보험의 핵심 가입층은 아니지만 향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및 부부 가구의 빈곤층 비중이 낮아지고 중산층 비중이 높아짐.
- 소득불평등 심화는 보험소비의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이 약화되고 있는 중·하위 소득계층의 위험보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함.
- 보험소비 시장이 중·고령의 부유층 시장과 젊은 중산층 시장으로 양분화 되고 있어, 각 시장에 적합한 상품 및 판매 전략이 필요함.
 - 중·고령 부유층 시장의 경우 자산관리, 세제혜택, 유산상속 등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젊은 중산층 시장의 경우 보험가입여력이 취약해진 것에 대응하여 비교적 저렴한 상품 공급을 통해 보험가입을 확대시킴으로써 보험산업의 위험보장 역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소득양극화는 가구의 구매력과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소득양극화로 소득계층 간 격차가 커지면서 중·하위 소득계층의 보험 구매력이 약해질 경우 가구의 보험가입이 감소할 수 있음.
 - 실제로 가구의 보험가입률은 2008년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보험소비자설문조사¹⁾에 따르면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2008년 90.8%에서 2016년 81.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의 보험가입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계층별 보험가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조 변화도 가구의 보험가입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소득양극화에 따른 보험 구매력 변화는 연령과 가구 유형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
 - 전체 인구와 가구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 그리고 1인 가구의 보험 구매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소득계층과 가구 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소비자 구매력과 보험가입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소득계층과 가구주 연령 및 가구 유형별로 보험가입(보험가입률, 납입보험료)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음.
 -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²⁾, 동 자료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을 포함하고 있음.

1) 보험소비자설문조사는 보험연구원에서 매년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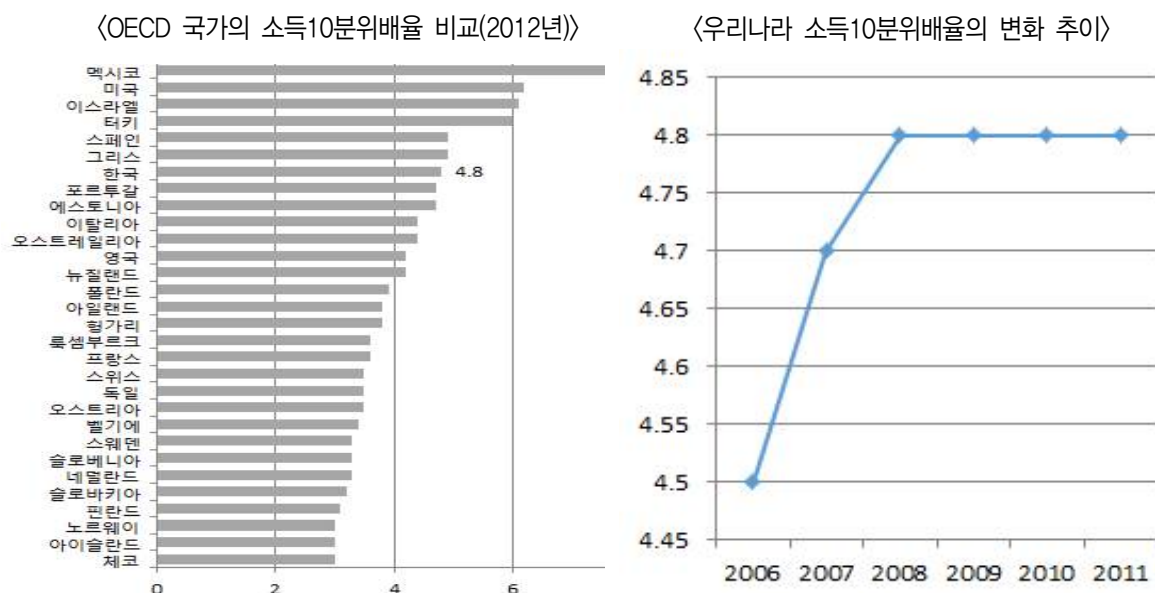
2) 한국노동패널은 4차 조사부터 가구의 보험가입 여부와 납입보험료를 조사하고 있음.

2. 가계의 소득분포 변화



- 우리나라의 최상위 10% 소득과 최하위 10% 소득의 비율(소득10분위배율)³⁾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소득10분위배율 국제비교 및 변화 추이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 가구 특성에 따른 보험 구매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주 연령 및 가구 유형별로 소득분포 변화를 분석하였음.

- 세후 실질소득을 OECD 기준인 1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⁴⁾으로 환산한 후 중위소득의 50%와 150%를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으로 분류하였음.
-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득경계는 1인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961만 원, 중산층과 부유층의 경계는 2,884만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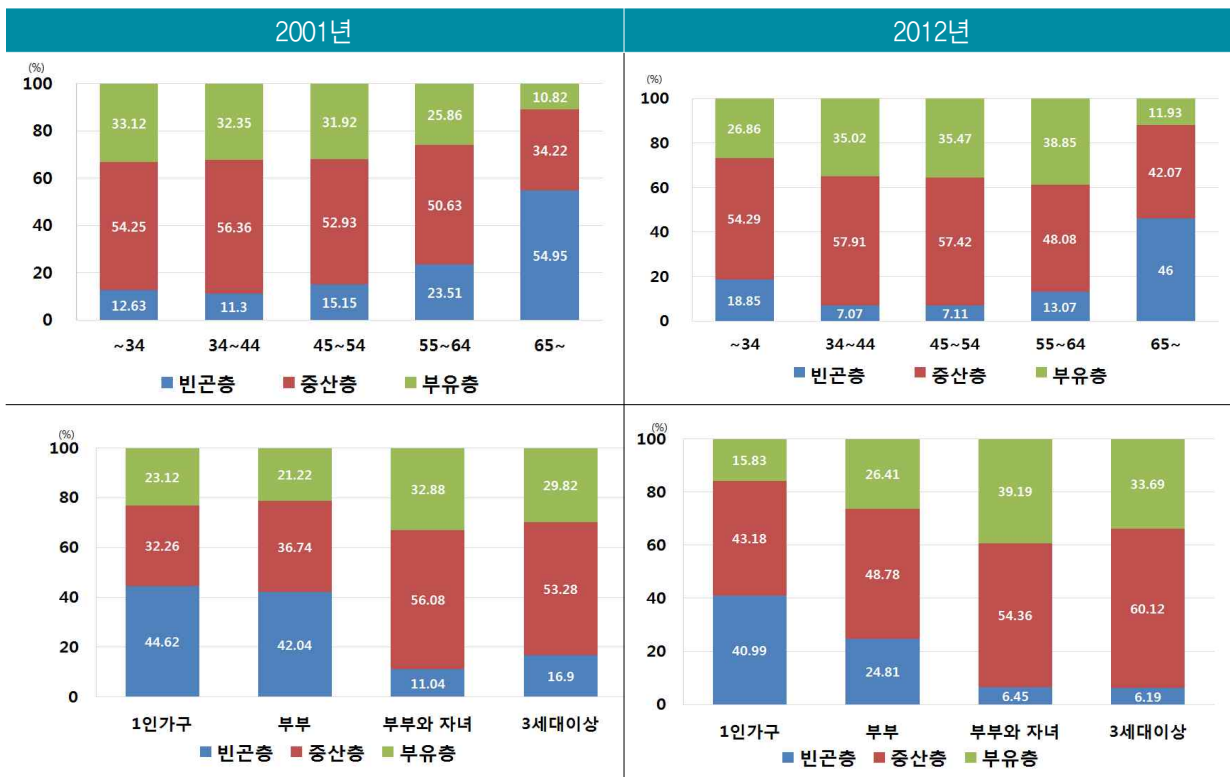
3) 소득10분위배율은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나눈 값임.

4) 균등화 소득은 서로 다른 가구원 수를 가진 가구들의 후생수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1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표준화한 것임. 처분가능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타 가구로의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함.

■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분포 변화는 젊은 층의 빈곤화와 중·고령층의 소득 개선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그림 2〉 참조).

- 34세 이하 가구의 빈곤층 비중이 증가하고 부유층 비중이 감소하였음.
- 중·고령층의 소득계층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음.
 - 중년층인 55~64세 가구와 고령층인 65세 이상 가구에서 빈곤층이 대폭(약 10%p) 감소하였음.
 - 중년층의 경우 감소한 빈곤층 10%p가 부유층의 증가로, 고령층의 경우는 중산층의 증가로 이어졌음.

〈그림 2〉 가구주 연령별, 가구 유형별 소득계층의 변화(2001년, 2012년)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 연도.

출처: 오승연·김유미(2015),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 가구 유형별로 소득계층의 변화를 보면, 1인 및 부부 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대폭 증가해 이들 가구의 중산층화가 두드러짐.

- 1인 가구의 경우 빈곤층과 부유층이 감소한 반면, 중산층이 약 10%p 정도 증가하였음.
- 부부 가구의 경우 빈곤층이 약 18%p나 감소하였고, 이는 중산층과 부유층의 증가로 이어짐.

3. 소득계층별 보험가입 변화 추이



가. 소득계층별 보험가입

■ 중·상위층과 비교해서 빈곤층의 보험가입률 감소가 두드러짐(그림 3) 참조).

- 중·상위층의 보험가입률은 2000년대에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2009년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후 점차 회복하고 있음.
- 빈곤층의 경우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보험가입률은 2001년의 절반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소득계층별 보험 가입률 변화 추이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 연도.

출처: 오승연·김유미(2015),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 중·상위층의 보험가입 수준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된 반면, 빈곤층의 보험가입은 현저히 감소하여 보험소비가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1) 참조).

- 빈곤층의 가구 구성비는 증가(18.7%에서 21.7%로)하였지만 전체 보험가입 가구가 납입한 총 보험료에서 빈곤층이 납입한 보험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5.3%에서 2.2%로)함.
- 전체 납입보험료에서 중산층과 부유층이 차지하는 보험료 비중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소득계층별 납입보험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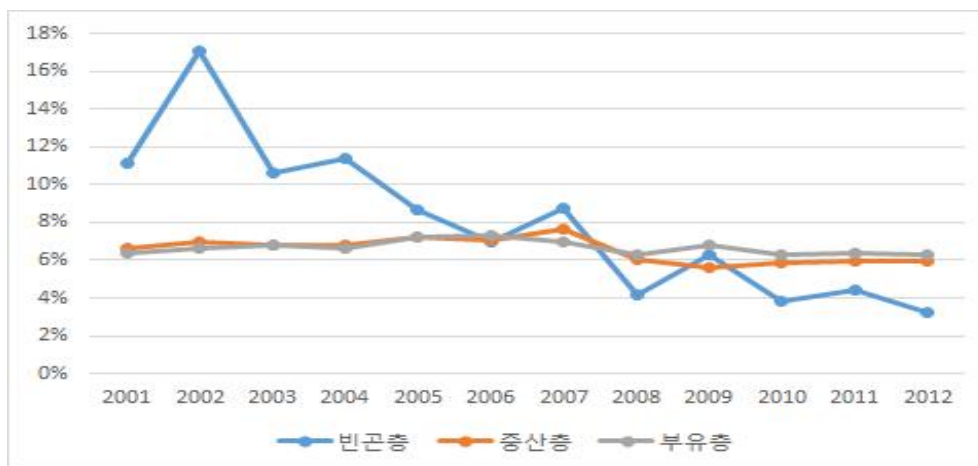
구분	가구 구성비		연평균 납입보험료(만 원)		전체 납입보험료 구성비	
	2001	2012	2001	2012	2001	2012
빈곤층	18.7%	21.7%	33.5	27.4	5.3%	2.2%
중산층	53.5%	51.3%	110.5	204.3	42.5%	44.1%
부유층	27.8%	27.0%	256.5	477.6	52.2%	53.7%
계	100%	100%	-	-	100%	100%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 연도.

■ 소득계층별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비중이 중·상위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빈곤층은 급감하여 빈곤층의 위험보장이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조).

- 빈곤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은 11.1%에서 3.2%로 급격히 감소함.
- 중산층과 부유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은 각각 6.6%, 6.4%에서 5.9%, 6.3%로 소폭 감소함.

〈그림 4〉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납입보험료 비중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 연도.

나. 가구 특성별 보험가입

■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경우 청·장년층(44세 이하)의 보험가입률이 감소한 반면, 중·고령층(45세 이상)에서 보험가입률이 증가하였음(〈표 2〉 참조).

- 전통적 가구 유형인 ‘부부+자녀’ 가구의 경우는 65세 이상에서 오히려 보험가입률이 감소함.

■ 가구의 납입보험료 역시 보험가입률과 마찬가지로 중년층과 1인 및 부부 가구의 보험료 증가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모든 가구 유형에서 청·장년층(44세 이하)의 납입보험료 증가율이 중년층(45~64세)에 비해 낮음.
- 노인가구에서는 특히 빈둥지 가구로 불리는 부부 가구의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388.9%), 독거노인의 증가율이 가장 낮았음.

〈표 2〉 가구 특성별 보험가입 변화(2001년, 2012년)

(단위: %, 만 원)

구분		1인			부부			부부+자녀		
		~44세	45~64세	65세~	~44세	45~64세	65세~	~44세	45~64세	65세~
보험가입률(%)	2001	54.3	24.9	4.6	64.6	47.4	9.0	81.2	63.4	33.2
	2012	42.6	37.4	3.7	59.5	56.0	17.8	76.5	69.0	23.9
전체 가구기준 연평균 보험료	2001	85	35	5	169	88	9	191	158	52
	2012	129	95	5	253	326	44	402	392	84
	증가율	51.8	171.4	0.0	49.7	270.5	388.9	110.5	148.1	61.5

자료: 한국노동패널, 각 연도.

4. 요약 및 시사점



■ 최근 가구 보험가입률의 하락은 주로 중·하위 소득계층의 보험 구매력이 약화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 납입보험료 중 빈곤층과 중산층의 비중이 줄고 부유층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중·하위 소득계층의 보험가입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

■ 소득양극화의 영향으로 보험소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

- 보험소비의 양극화는 빈곤층과 중산층의 위험보장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소득불평등 개선과 더불어 중·하위 소득계층의 위험보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됨.

■ 가구 특성별로 소득계층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청·장년층의 소득계층 하락과 중·고령층 및 1인·부부 가구의 소득계층 개선이 나타나고 있음.

- 전통적으로 보험의 핵심 가입층은 아니지만 향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령층 가구와 1인 및 부부 가구의 보험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보험소비층이 중·고령의 부유층 시장(affluent mature market)과 젊은 중산층 시장(young and middle class mass market)으로 양분화될 것임.

■ 양분화되고 있는 두 시장에 적합한 상품 및 채널 전략이 필요함.

- 중·고령 부유층 시장의 경우 자산관리, 세제혜택, 유산상속 등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의 개발 및 공급이 필요함.
 - 자산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설계사 인력으로 이들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젊은 중산층 시장의 경우 보험가입여력이 취약해진 것에 대응하여 비교적 저렴한 상품 공급을 통해 보험가입을 확대시킴으로써 보험산업의 위험보장 역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저가형 상품에 대응하는 온라인·모바일을 이용한 저가 채널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kiri](#)